

## 포이 산책길 ①

자연 생태계의 공존을 꿈꾸며

걷는구간	매봉역→양재천→달터공원 →구룡산 정상
걷는거리	3.5km
소요시간	1시간 30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초급코스

강남구 양재천과 구룡산을 단절시켰던 8차선 양재대로 위에 녹지연결로가 생겼다. 이에 따라 매봉역에서 출발하여 양재천과 달터공원을 거쳐 구룡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3.5km의 산책길이 하나로 이어져 양재천에서 구룡산까지 사람과 동물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녹지연결로가 생긴 이래 비로소 완전체가 된 이 길은 ‘포이 산책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서울의 대표적인 걷기 명소가 되고 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는 말이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사리에 통달하여 물과 같이 막힘이 없으므로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의리에 밝고 산과 같이 중후하여 변하지 않으므로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다. ‘포이 산책길’이야말로 하천길과 숲길이 공존하여 지혜로운 자와 어진 자 구분 없이 모두가 만족하며 걸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길이다.

양재천에서 물 구경을 실컷 하고 중간에 양재천을 건너 달터공원으로 향한다. 양재천부터 구룡산 입구까지를 잇는 작은 능선 자락에 꾸며진 달터공원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울창한 숲 아래 눈높이에 맞춰 무성하게 핀 진달래와 야생화들이 눈에 즐거움을 주는 명품 숲길이다. 야트막한 높이에 부드러운 흙산이라 남녀노소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 동네 주민들의 놀이터 겸 쉼터로 인기가 높다.



양재대로 녹지연결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서울형 녹지연결로’ 조성을 위해 녹지 보존·동물 이동로(최소 폭 10m 이상)와 보행로(폭 2m)가 함께 설치됐다. 대신 녹지 보존·동물 이동로와 보행로 사이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키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를 다층구조로 섞어 심어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확보했다.



달터공원 숲길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봄에는 진달래와  
야생화들이 피어 산책에 즐거움을 더한다.



- 🚇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양재천을 횡단하는 보행자교로 진입한다.
- ☎ 02-3423-6248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 주차장 별도로 없음
- 포이근린공원에 화장실과 휴게시설 있음
-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불가능
-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달터공원부터 구룡산 정상까지는 깊은 숲속에 길게 뻗은 오솔길을 따라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구룡산이 306m로 제법 높은 편이지만 능선에 오른 후에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평탄한 숲길이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걷기 좋다. 우거진 산길을 허위허위 더듬어 정상에 오르면 강남 일대와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그 너머 남산과 북한산, 도봉산까지 바라보인다.